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236

2014年 2月

碩士學位論文

羅州地方 東學農民戰爭과 官軍의 對應

朝鮮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李 相 岩

羅州地方 東學農民戰爭과

官軍의 對應

The government troops'coping with the
Donghakpeasant-war in Naju region

2014年 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李 相 岩

羅州地方 東學農民戰爭과 官軍의 對應

指導敎授　　李 鍾 範

이 論文을 史學 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史 學 科

李 相 岩

李相岩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　授	최진규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　授	이종범 (인)
委　員	朝鮮大學校	副教授	김성한 (인)

2014年　2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目　　次

ABSTRACT

Ⅰ. 머리말 ·····1

Ⅱ. 1894년 동학농민군의 1차 기포와 나주 진공 실패

1. 4월 1차 공세····· 3

2. 7월 2차 공세····· 7

3. 전봉준의 담판····· 10

Ⅲ. 1894년 하반기 나주 관군의 승리

1. 1894년 10월 2차 기포 당시 관군의 대응····· 14

2. 나주 관군의 반격 및 승리·····18

Ⅳ. 1895년 나주평적비 수립(竪立)과 관민의 동향

1. 나주목사 민종렬의 전공보고····· 28

2. 평적비 건립 및 연회····· 30

3. 나주 유생의 정석진 포상 건의 및 실현····· 34

Ⅵ. 맺음말 ····· 37

참고문헌 ····· 39

Abstract

The Government Troops' Coping with the Donghak-peasant War in Naju Region

The revolt started by Jun Bong-jun in Gobu in January 1894 (the 31st year of King Gojong's reign) led to the first uprising in Mujang and then spread to other Jeollado regions. Despite its isolation due to the condition, Naju was the only region where they blocked the entry of peasant troops and denied the establishment of Jipgangs of orpeasants. Naju was capable of withstanding the raging Donghak peasant troops because local officials proactively formed strong government troops. Also, the governor of Naju named Min Jong-ryeol took the leadership in adopting the Hyangyak and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which was supported by the class of local officials called Haynglees. In addition, since the second uprising in late autumn of the Gaboh year (1894), the government troops rode the momentum gained by the successful defence in Naju and advanced into Gwangju, Nampyeong, Gangjin, Jangheung, Youngam and Muan, playing important parts in suppressing local peasant troops. The Hyanglee class in Naju took the initiative in organizing the government troops during the Donghak peasant war and succeeded in

securing Naju province. Naju was the only province where they successfully fended off the attack from the peasant troops.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s, lots of Hyanglees were listed in the <Gabohgungongrok>. Among the Hyanglee officials who joined the government troops, Dotongjang Jeong Seok-jin received credit for quelling the revolt and promoted to the governor of Hainam. Also, the governor of Naju named Min Jong-ryeol took the leadership in adopting the Hyangyak and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which was supported by the class of local officials called Haynglees. In addition, since the second uprising in late autumn of the Gaboh year (1894), the government troops rode the momentum gained by the successful defence in Naju and advanced into Gwangju, Nampyeong, Gangjin, Jangheung, Youngam and Muan, playing important parts in suppressing local peasant troops. The Hyanglee class in Naju took the initiative in organizing the government troops during the Donghak peasant war and succeeded in securing Naju province. Naju was the only province where they successfully fended off the attack from the peasant troops.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s, lots of Hyanglees were listed in the <Gabohgungongrok>. Among the Hyanglee officials who joined the government troops, Dotongjang Jeong Seok-jin received credit for quelling the revolt and promoted to the governor of Hainam.

ABSTRACT

The government troops'coping with the Donghakpeasant-war in Naju region

1894년(고종 31) 1월 고부(古阜)에서 전봉준을 필두로 하여 일어난 민란은 3월 20일 무장에서의 1차 기포로 이어져 점차 전라도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주는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농민군의 입성을 저지하고 농민집강소를 거부하였다. 이렇듯 나주가 동학농민군의 질풍노도에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향리층이 적극 나서 강력한 수성군을 구성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주목사 민종렬의 향약 실시 등을 비롯한 지도력 발휘와 치안유지 등에 적극적이었고 이에 대하여 향리층이 적극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갑오년 늦가을 2차 기포 이후에는 나주를 성공적으로 수성한 여세를 몰아 광주·남평·강진·장흥·영암·무안 등지로까지 진출하여 해당 지역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주 향리층은 동학농민전쟁 당시 주도적으로 수성군을 조직하여 나주성을 수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농민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은 전라도 전역에서 나주가 유일하였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많은 수의 향리들이 <갑오군공록>에 입록 되었으며, 수성군에 가담한 향리층 인사들 중 도통장 정석진의 경우에는 민란이 평정된 이후 그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해남군수로 승차하여 부임하기에 이른다. 한편 나주 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과 당시 나주 향리층의 동향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정석진을 중점으로 살피고자 한다.

Ⅰ.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60년 경주(慶州)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제우(崔濟愚, 호: 水雲, 1824~1861)가 창도한 동학은 유교・불교・도교 사상은 물론 천주교까지 포용하면서 정감록 사상과 같은 전통적 민간신앙까지 흡수하였으니 당시 유행하던 모든 사상의 합성체라고 말할 수 있다.[1] 동학사상이 나주지방에 처음으로 전래된 것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나주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장흥(長興), 보성(寶城), 강진(江津), 완도(莞島) 등의 각 군에 1891년경부터 동학이 포교되기 시작하였다고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과 그리 멀지 않은 나주지역에도 1890년대 초쯤에는 동학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2]

1894년(고종 31) 1월 고부(古阜)에서 전봉준(全琫準)을 필두로 하여 일어난 민란은 3월 20일 무장(茂長)에서의 1차 기포로 이어져 점차 전라도 전역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나주(羅州)는 고립(孤立)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농민군의 입성(入城)을 저지하고 나주를 사수하였다.

나주가 강력한 수성군(守城軍)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향리(鄕吏)층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차 기포 직후 나주목사 민종렬(閔鍾烈)을 필두로 상당한 수의 향리층 인사들이 수성군에 가담하여 나주를 방어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주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이후에는 남평・강진・장흥・영암・무안 등지로까지 진출하여 해당 지역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3] 그리고 수성군에 가담한 향리층 인사들 중 도통장(都統將)에 임명되었던 정석진(鄭錫珍)[4]의 경우에는 민란이 평정된 이후 그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해남군수를 제수(除授)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895년에 일어난 을미사변(乙未事變), 그리고 단발령(斷髮令)을 비롯한 개화정책에 반대하며 1896년 나주의병을 주도하여

---

1) 이상식・박맹수・홍영기 공저, 「전남동학농민혁명사」『전라남도』, 제3편 중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 p. 264
2) 이상식・박맹수・홍영기 공저, 「전남동학농민혁명사」『전라남도』, 제3편 중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사, p. 264
3)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19, 2005. 59-83.
4) 「난파유고」 권 4, 「行狀」에서 정석진은 나주 정씨로 자는 台完, 호는 蘭破라고 기록하고 있다.

척사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의병을 주도했던 적지 않은 향리 인사들이 처형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5] 한편 나주 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과 당시 나주 향리층의 동향에 대해서는 축적된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6] 또한, 향리층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조선 후기 향리들의 신분이동과 조직구성, 지방행정과 관련한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7]

이 글에서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정석진을 중점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주 의병을 주도했던 향리층과 관군의 시선으로 전개되었던 전쟁의 양상을 살펴보고, 의병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동학농민운동이 평정된 이후 정석진을 비롯한 향리층 인사들이 안정된 위치에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척사 노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5)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19, 2005. 59-83.

6)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19, 2005. 59-83. -나주 지역 동학농민전쟁을 다룬 글로는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 동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이상식 편저, 『동학농민혁명과 광주・전남』,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4; 박이준, 「『금성정의록』을 통해 본 1894년 농민전쟁과 나주」, 『나주시사』(근간) 참조

7) 박진철, 「朝鮮末 羅州邑 鄕吏社會의 持續性과 變化」, 『조선시대 향리층의 지속성과 변화』, 한국학술정보(주), 향리층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김준형, 「조선시대 향리층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한국의 전통사회와 신분구조』, 한국사회사연구회 1991 참조.

II. 1894년 동학농민군의 1차 기포와 나주 진공 실패

1. 4월 1차 공세

19세기 후반 나주는 거듭된 흉황(凶荒)으로 인해 조세(租稅)가 미납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8] 1876~1877년의 흉황으로 인한 재해(災害)를 복구하지도 못한 채, 1882~1883년에 또 다시 흉황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해 나주의 재정(財政) 위기는 가중되고 있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民)에게 돌아갔다. 그 결과 나주에서는 1880년대의 10년 동안 민요(民擾)가 발생하였다. 특히 1889년부터는 3년 간 연속하여 민란이 일어났으며, 여기에는 나주의 38개 면(面) 전체가 가담하였다.[9]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민란이 일어나자 전봉준(全琫準)은 우두머리로 추대되었다. 당시 전봉준의 행적을 황현의 『오하기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지난날 봉준은 집이 가난하고 도움 받을 만한 곳도 없어 약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방술(方術)을 익혔다. 언젠가 지관을 초치하여 묘자리를 부탁하면서 "만약 크게 왕성할 자리가 아니면, 아주 망하여 후사가 끊어지는 곳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자 봉준은 탄식하면서 "오랫동안 남의 밑에서 살면서 구차하게 성씨를 이어가느니 차라리 후사가 끊어지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는 오래 전부터 동학에 물들어 있었으며 요사한 지식에 미혹되어 늘 울분에 차 있었다.[10]

그런데 1월 10일 고부봉기 이후 한동안 읍을 장악하던 전봉준은 박원명이 새로 군수로 부임하며 폐정개혁을 약속하자 농민들이 일시에 흩어지자 본격적인 거병의 뜻을 접지 않을 수 없었다.

난민들이 흩어져 버렸으므로 봉준 또한 급히 도망쳐 얼마 후 수색이 심해지자 봉준은 피

8) 나선하, 「16~17세기 羅州 士族의 존재양상과 鄕權의 추이」,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2011.5, 79-114 (36 pages))
9) 나선하, 「16~17세기 羅州 士族의 존재양상과 鄕權의 추이」,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2011.5, 79-114 (36 pages))
10) 김종익 옮김,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首筆 p. 72~73

할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 일당 김기범(金箕範, 김개남),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敬善) 등과 화를 복으로 바꾸어준다는 꾀로 백성들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그들을 끼고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에 솔깃하여 우도 일대 10여 읍이 일시에 봉기하였다. 동학이 난민과 함께 어우러진 것이 이때부터였다'.[11]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가 재차 동학교도를 핍박하며 민심을 흔들자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를 선언하였다. 배항섭은 동학농민군이 무장기포 이후 전주성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금구까지 진격하였다가 후퇴하는 4월 3일까지의 1차 세몰이 시기와 그 이후 전주점령 시기까지 이루어진 2차 세몰이 시기의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는데,[12] 동학농민군이 나주 인근에 출현하게 된 시기는 4월 7일 황토현 승리 이후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지난 4월 18일, 전봉준이 나주목사(羅州牧使) 민종렬에게 농민군의 나주 입성을 통고하던 때였다.

이때 농민군과 관군은 직접적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으나 나주를 압박하던 기세는 엄청났다. 더구나 거듭된 흉황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나주농민 다수는 전봉준에 동조하여 농민군에 가담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주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농민군에게서 나주성을 사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하여 농민군과 전투를 벌여 승전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전라도 전역이 동학 농민군의 세력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는 그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나주성을 사수한 이후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감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나주가 타 전라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들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적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주 백성들이 동학 농민군 자체를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당시 나주목사였던 민종렬은 지난 1893년(고종 30) 계사(癸巳)년 겨울에 부임한 인물로 남전(藍田)의 옛 규약에 의거하여 향약을 정비하는 등, 갑오(甲午)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명령이 시행된 지 2~3개월 만에 관리와 백성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13]

---

11) 김종익 옮김『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首筆 p, 72
12) 배항섭,「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19, 2005.

4월 18일, 함평에 주둔하고 있던 농민군이 나주공형(羅州公兄)에 통문을 보내어 봉기한 목적을 밝히고자 하였다. 당시 함평에 집결한 농민군의 수는 6~7천에 달하고 있었는데,[14] 민종렬은 전적(全賊, 전봉준)이 보낸 편지의 뒤에 "명분 없는 거사로 법을 어그러뜨린 것은 죽여야 마땅하고, 도리에 어긋난 말은 듣고 싶지 않다(無名之擧 在法當戮 不道之言 非所願聞)"라는 16자를 써서 적의 진영에 돌려보냈다.[15]

민종렬이 농민군을 상대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농민군을 상대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주는 이미 농민군의 무장 기포 발발 직후부터 강진・해남・영암・장흥・보성 5개 고을에서 200명의 포수를 징집하여 배치하고 있었고,[16] 보유하고 있는 병기 또한 충분했으며, 단순한 창검이 아닌 천보총(千步銃), 대완포(大碗砲) 등의 수성에 용이한 화기로 무장하였다.

또한 오지영의 동학사에서는 나주성이 서북쪽으로 높고 가파른 큰 고개가 둘러쳐 있고, 동남으로는 큰 강이 성을 안고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안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 병력이 갖추어지면 공략하기 어려운 요새라고 기록하고 있다.[17] 관군의 수가 농민군에 비하면 보잘 것 없으나 농민군을 상대하기에 효과적인 무장상태를 갖추고 있었다.

아마도 전봉준 또한 나주의 방비가 굳건한 점을 염려하여 나주공형에 봉기한 목적을 알림과 동시에 농민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주성을 포섭하고자 통문을 보냈을 것이다. 농민군의 가장 큰 취약점은 모인 병력은 많으나 정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백성들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1차 기포 당시 농민군의 세력 하에 들어간 지역은 관리들이 모두 도주하여 대부분이 무혈입성(無血入城) 했던 지역이었다. 즉 오합지졸(烏合之卒)에 불과한 병력으로 만약, 농민군이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농민군의 사기 저하와 무단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

13) 『금성정의록 갑편』 고종 30년 1893년 12월.
14)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p.70; 「隨錄」, p.200; 「兩湖剿討謄錄」, p. 170; 「東匪討錄」, p. 318.
15)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16)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p. 77
17) 오지영, 「동학사」, 『東學思想資料集』, 2, p. 483

있는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나주를 도모하고자 했던 전봉준과 농민군 세력은 나주 공략을 미루고, 4월 22일 밤, 함평진(咸平津) 산장(山場)으로 진영을 옮기고 다음날 장성으로 향하였는데 이때, 초토사(招討使) 홍재희(홍계훈)가 영광에서 약간의 군대를 보내어 적을 정탐하던 중 적과 마주쳐서 대관(隊官) 이학승(李學承)이 죽고 관군이 패배하였다.[18]

이때 민종렬은 분통을 터뜨리며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화(禍)가 홍수나 맹수보다 심해서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 마침 참막(參幕)에 있던 정석진(鄭錫珍) 또한 즉각 호응하기를,

"땅을 지키고 적을 토벌하는 것이 맡은 일이고, 대장을 보좌하여 계획을 돕는 것도 맡은 일입니다. 원컨대 고립된 성을 죽음으로 지킵시다."

하였다. 이에 방략을 세우고 군사를 지휘해서 한편으로는 훼손된 첩(堞)을 수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를 수선하며 군오(軍伍)를 모집하였다.[19] 민종렬이 말하기를

"정태완(정석진) 너는 도통장(都統將)이다. 크고 작은 군무(軍務)를 네가 모두 주관하라. 분발하여 몸을 돌아보지 않고 군사들의 사기를 격려하는 것은 너만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김재환 너는 부통장이다. 적을 잘 헤아리니 긴 계책을 세우고 적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은 너만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중략) 적을 쳐서 나라에 보답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 있고, 적을 풀어 주어 임금에게 물려주는 것도 너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군중이 모두 눈물을 뿌리며 목숨 걸고 싸우기를 원했다. 이때 나주의 인사(人士)들도 의병을 일으켜 중외(中外)에 도움이 되겠다고 계획하고 유기연(柳紀淵)・임노규(林魯圭)・민주식(閔周植)・유병식(柳秉植)・임한상(林漢相)・박훈양(朴薰陽)・오석환(吳錫煥)・나사집(羅史集)・임병한(林炳翰)・정재형(鄭在衡)・나도현(羅燾鉉)・이기우(李祺宇) 등이 참여하였

18)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19)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다.[20]

정석진은 나주 정씨(羅州 鄭氏)로 1851년 8월 9일, 나주 서문 명당리(明堂里)에서 태어나 동학농민군에 의한 무장 기포가 발생할 당시, 호장(戶長)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난파유고』에서는 그가 어려서부터 집안이 부유하였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을 구휼하여 뭇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21] 그의 집안은 조선 전기부터 대대로 나주의 전통 향리가문이었는데, 전통의 향리가라 함은 호장과 이방(吏房)직을 거의 독점하고 꾸준히 향리직역을 맡는 가문을 의미한다.[22]

민란이 발생하면서 정석진은 도통장에 임명되어 영장(營將) 이원우(李源佑)와 더불어 일체의 군무를 위임받아,[23] 병사의 훈련과 나주성의 보수에 전념하였다. 또한, 사재(私財)를 내어 군량의 보급에도 일조하였는데, 일부 정석진을 따르는 향리층 인사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나주 수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24] 이는 정석진이 향리층의 우두머리 격인 호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향리층들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그가 나주의 향리층 인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농민군은 4월 25일 전주성을 점령, 이후 전주화약을 계기로 농민군 점령지역 하에 집강소가 설치되는 등, 농민군이 봉기하면서 요구하였던 사항들이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듯 하면서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주는 농민군의 1차 기포 당시 농민군에 의한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으며 농민군이 기포한 직후,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여 농민군이 나주를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를 저지하였다.

2. 7월 2차 공세

본격적으로 나주에 전운(戰雲)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였다가 관군과 화약을 맺은 후 2개월 무렵이 지난 7월이었다. 최경선(崔景善)과 오권

---

20) 『금성정의록 을편』, 토평비명 병서 참조.
21) 『난파유고』, 권 4 行狀.
22) 박진철, 「한말 나주읍 향리사회의 지속성과 변화」, p.234(김준형, 「조선후기 울산지역 향리층 변동」, 『한국사연구』56, 1987, 44면 참조.)
23) 『금성정의록 을편』, 토평비명 병서 참조.
24) 『난파유고』, 권3 부록, 「招討使軍功別紙」.

선(吳權善)이 각각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나주성을 공격하였는데 이들이 나주성을 공격한 목적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오권선은 나주 태생으로 1차 기포 이전부터 접주(接主)로 활동하며 나주 인근지역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당시 전주화약으로 전라도 지역에 집강소(執綱所)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나주는 민종렬이 결사항전을 주장하면서 끝내 집강소가 들어설 수 없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오권선이 최경선의 도움을 받아 나주성을 공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1894년 7월 초하루, 적괴(賊魁) 최경선이 무리 수천을 이끌고 유린하여 멀리 몰아와 곧장 본주(本州, 나주)를 공격하였다. 이에 오권선이 그 무리를 이끌고 합세하여 금안동(金安洞)에서 합진(合陣)하고 금성산(錦城山)에 주둔하였는데,[25] 7월 5일 어둘 무렵에 산꼭대기에서 일제히 내려와 곧장 서쪽 성문에 접근하였다.

『금성정의록』에서 이 서문(西門)전투를 기록한 것을 보면

민후(민종렬)가 정석진을 불러 모의를 결정하여 대오를 엄중히 단속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 깃발을 내리고 북을 멈추어서 적막하여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였다.[26] 관군은 명령이 내려지자 즉각 대완포와 장대포를 연달아 쏘니 화염이 사방을 붉히고 소리가 산악을 흔들었다. 적도(賊徒)가 혼비백산하여 서북쪽으로 도망가니 스스로 서로 밟혀서 죽거나 다친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27]

라고 하였는데 서문 전투가 끝나고『금성정의록』의 저자인 나주유생 이병수(李炳壽)가 “조금 전에 민공(민종렬) 조용히 진정시키고 정석진이 계책을 내어 속임수를 세우지 않았다면 어찌 대승의 큰 공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28] 라고 정석진을 언급하였다. 이는 정석진이 수성군 내에서 중임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서문 전투의 승리로 인해 정석진은 도통장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었고 향리층 이외의 인사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7월 6일, 민공(민종렬)이 도통장(都統將, 정석진)과 더불어 4문의 수문장 및 16초

25)『금성정의록 갑편』, 甲年七月初朔, 7월 초하루.
26)『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27)『금성정의록 갑편』, 甲年七月初朔, 7월 초 5일.
28)『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哨)의 군병, 그 나머지 별장(別將)과 별초(別哨)를 모두 불러 잔치를 베풀며 말하기를

"전투에서 이겼으나 장교가 교만해지고 병졸이 나태해지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꺼리는 일이다. 진실로 혹여 대중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비(武備)에 조금이라도 게을리 한다면 지난 밤 한 번의 승리가 뒷날에 사면으로 침략하는 근심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더욱 마땅히 조심하고, 여러 범절을 막아 지키고, 게으르지 말고 더욱 부지런하면 아마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저 흉봉(凶鋒)이 지난 번 풍패(豊沛, 전주)에 입성(入城)한 날에 비해 열 배 더 많다면 우리 군대는 모름지기 백 배 더 경계해야 풍성(豊城, 전주성)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니 각기 마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29]

이에 군사들의 사기가 더욱 고무되고 성의 수비가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나 정석진의 행적은 조정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고 단지 나주목사 민종렬의 공적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서문 전투 이후의 기록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때 승지(承旨) 엄세영(嚴世永)이 왕명(王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동학을 무유(撫諭)하여 그들을 귀화(歸化)시켜 왕법(王法)을 범하지 말라는 뜻을 낱낱이 효칙(曉飭)해서 조정의 호생광절(好生曠絶)한 은택을 보이고자 하였는데, 나주에 이르러 들어와 민공을 보고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크게 기뻐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30] 정석진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어쩌면 당시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세세한 공적까지 치부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이후 농민반란이 진압된 이후에도 정석진을 비롯한 수성군 인사들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주 수성군의 7월 서문 전투 승리는 농민군의 예기를 꺾어 놓기에 충분했다. 전라도 전역이 농민군의 세력권 하에 들어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주만이 의연하여 마치 금성철관(金城鐵關) 같았다. 당시 나주는 전라도에서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고, 농민군에게는 '등에 박힌 가시'같은 지역이었다.[31] 저들이 크게 욕심내는 것은 오직 나주만을 삼키는 것이고, 크게

29) 『금성정의록 갑편』, 甲年七月初朔, 7월 초 6일.
30) 『금성정의록 갑편』, 甲年七月初朔, 7월 초 6일.
31) 배항섭,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 p. 75.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나주였다.[32]

3. 전봉준의 담판

최경선(崔景善), 오권선(吳權善) 휘하 농민군의 나주성 공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봉준은 다시금 나주목사와 담판을 벌리기로 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나주 수성군(守城軍)이 건재할 경우, 이는 농민군에게 큰 위협이었으며 전봉준에게는 '등에 박힌 가시'같은 지역이었다.

나주는 전라도 지역에서 전주 다음가는 요충지였고 또한, 나주를 방치해둔다는 것은 배후에서 역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비록 농민군의 세력이 압도적이라고는 하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화력을 가진 천보총(千步銃) 등으로 무장한 나주 관군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주목사 민종렬의 선정과 정석진을 비롯한 향리층의 자발적 기부와 군사적 참여로 인하여 고립된 상황이라고는 하나 수성군은 나주성 내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단순히 농민군이 무력으로 점령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봉준 휘하 농민군 세력은 다시 나주목사를 설득하고자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위해 전봉준이 직접 나주성을 방문하였다. 나주성으로 들어가 민종렬을 만난 전봉준은 민종렬에게 전라감사가 집강소 설치를 인정했으니, 나주도 이에 응하라고 권고했다.[33]

이 담판에 관하여 상반된 입장의 두 가지 기록이 존재하는데, 먼저 나주 유생의 입장에서 기록한 『금성정의록』에서는 전봉준이 집강소 설치에 대하여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으며, 민종렬이 진노하며 타이르자 전봉준은 기가 질려 감히 다시 말을 못하다가 머리를 싸매고 도망쳤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34] 다음은 민종렬과 전봉준의 대화 내용이다.

1894년 8월 13일, 거괴(巨魁) 전봉준이 도당 십여 인을 이끌고 손에는 아무런 병기도 들지 않고 본주 서쪽 성문 밖에 와서 수문별장(守門別將)에게 청하기를 "나는

32) 『금성정의록 갑편』, 甲年七月初朔, 7월 초 6일.
33)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 280.
34)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 280(『금성정의록』, p.49).

순영문(巡營門)의 문첩(文牒)과 막비(幕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컨대 문을 열어 민태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는 인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민종렬에게 하소연하였다.[35]

“소생 등은 불행하게도 근세에 탐관오리의 학정을 받아 생업을 꾸려갈 수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지경에 이르러 머리를 모으고 발을 나란히 하여 깊이 원통함을 부르짖어 병폐를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안핵(按覈)이 불공정하여 초토(招討)하는 일로 군대를 움직여 결국 왕화(王化)가 미치지 않는 황지(潢池)의 적자(赤子)로 하여금 병기(兵器)를 우롱하게 하니, 참으로 기꺼이 죽기가 싫어서 피신하여 밤낮으로 실낱같은 목숨을 이어갈 뿐입니다. 딴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공(明公)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소서.”[36]

이에 대하여 민종렬은 다음과 같이 효유하였다.

“순영(巡營)의 분부에 너를 허물없는 억울한 백성이라 하였는가? 너희들은 본래 좌도(左道)를 끼고 백성을 꾀었으니 이미 난상(亂常)의 무리이다. 하물며 감히 수토관(守土官)을 모해(謀害)하고 순상(巡相)을 박축(迫逐)하고 임금의 군대에 항전하였으니, 위로는 궁궐에 계시는 임금님께 근심을 끼치고 아래로는 만백성을 살육하는 비참함을 끼쳤으니 죄악이 가득차 무거운 형벌에 합치될 뿐이다. 너는 비록 부리의 길이가 석 자라도 어찌 변명할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마땅히 너를 죽여 군중(軍中)에 돌려야 하지만 특별히 너의 한 가닥 목숨을 용서하겠으니 너의 당과 무리에게 고하여 빨리 귀화하여 토벌당하는 것에 이르지 말게 하라.”[37]

전봉준은 기가 꽉 막히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겨우 항변 비슷한 언설을 보탰다고 한다.

“지금 성(省) 안에 여러 군(郡)이 거의 모두 무사안일하게 지내는데 오직 명공만이 홀로 고성(孤城)을 지키느라 연 서너 달을 더운 날에 힘들게 일하고, 마음을 애태워 정신을 소모

35)『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全琫準.
36)『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全琫準.
37)『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全琫準.

하니 어찌하여 이처럼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까?”[38]

여기에 대하여 민종렬이 대노하였는데 이들 사이 대화는 다음과 같다.

“너의 무리들도 집이 있느냐?”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울타리가 있는가? 기르는 개도 있는가?”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민공이 말하기를 “울타리를 치고 개를 기르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개를 기르는 까닭은 도둑을 보고 짖게 하기 위해서이고, 울타리를 치는 까닭은 적을 막기 위해서이다. 오두초막(烏頭草幕)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국가의 중진(重鎭)에 성(城)을 지키는 자가 없겠는가? 만약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도둑에게 아첨하여 꼬리를 흔들고 도리어 주인을 무는 것은 일찍이 개나 돼지만도 못할 뿐이다. 너의 말은 진실로 도둑이 주인을 증오한다고 이를 만하다”라고 하였다.[39]

전봉준은 기가 질리어 입을 다물고 머리를 싸안고 나가 역려(逆旅)에 묵었다. 다음 날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성장령(守城將領)이 건의하기를 “이 무리들이 성 밖으로 나가면 일제히 배후에서 포를 쏘아 훗날의 걱정을 없애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이 장령을 요청하였는데 그 사연 인즉 복장(服裝) 10여 건을 내주며 부탁하기를 “이것은 나를 따라 다닌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몇 달간 더위와 장마에 먼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땀과 때가 이처럼 심하니 바라건대 공들이 품팔이를 사서 깨끗이 빨아서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영암(靈巖)에 가서 3, 4일 있은 뒤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 바꾸어 입어 더러움을 면하게 해주신다면 공들의 은혜입니다. 번거롭게 애써서 사양하시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장령이 그것을 믿고는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몇 날 뒤에 다시 도모하여도 오히려 늦지 않다고 여겼다. 드디어 문을 열라고 하니 벗어나 도망갈 수 있었다.[40]

『금성정의록』의 기록에서 만으로 본다면 농민군의 세력이 월등히 우세함에도 불

38) 『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全琫準.
39) 『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全琫準.
40) 『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全琫準.

구하고 민종렬을 대하는 전봉준의 태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나주성에서 죽음을 맞이할 뻔했다. 그러나 오지영의 『동학사』를 살펴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와는 전혀 다르다.

(전봉준이 성 안에 들어오자)목사 민종렬은 영문을 제대로 모르고 황망히 일어나며 물어 말하기를 "손님은 누구십니까"라고 하였다. 이 질문에 전봉준은 "나는 동학군 대장 전봉준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목사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전대장은 말하기를 "주관(州官)은 괴이하게 생각지 마오. 군(君)도 조선 사람이요, 나도 조선 사람으로 조선 사람 대하기가 어찌 이와 같습니까?. 요즈음 우리 나라는 왜구가 독수를 내밀어 침략을 꾀하고 국정은 나날이 어지러워져서 말이 아니어 나라 존망(存亡)이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습니까? 빨리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하였다. 목사가 전대장의 기풍을 보고 언사를 듣고서 간담이 서늘하여 말문이 막히어 감히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었으며 오직 머리를 숙이며 전후 사유를 듣기를 청할 뿐 이었다. 전봉준이 홍계훈(洪啓薰)과 강화한 일(전주화약)과 각 군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서로 국사를 의논한 일 등 전후 수말(首末)을 낱낱이 말하니 사리가 그럴듯하고 위풍이 또한 늠름했다. 이에 민종렬은 다만 한 마디로 유유(唯唯, 좋소 좋소) 할 따름으로 이날로부터 집강소를 설치하여 정사를 보게 하였다.[41]

이처럼 오지영의 『동학사』에서는 『금성정의록』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두 가지 기록이 서로 다른 것은, 기록한 당사자가 당시 서로 다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지만, 전봉준이 나주를 설득하기 위해 민종렬과 만나 집강소 설치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또한 『동학사』의 기록과는 달리 농민군의 활동 기간 동안 나주에는 끝까지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았다.[42] 결국 전봉준과 민종렬의 담판은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되었고, 이후 농민군이 재차 기포 하면서 전투의 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

41)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 281(오지영, 『동학사』, p. 473~475.)
42)이상식・박맹수・홍영기,『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 282

III. 1894년 하반기 나주 관군의 승리

1. 1894년 10월 2차 기포당시 나주 관군의 대응

1894년 6월 하순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고 개화파내각을 출범시키면서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자 전봉준은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과 담판하면서 '관민 합의(官民相和)'의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리하여 나주를 제외한 전라도 전역은 본격적인 집강소 체제로 들어섰다. 그러나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군의 침략 의도가 노골화하자, 농민군들은 일본의 침략과 그를 위시해 주구(誅求) 노릇을 하던 친일 개혁파 처단을 외치며 교전을 확대하고자 하여 전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43]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세력은 7월 15일 '남원대회'를 통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2차 기포를 준비하였다. 9월 말 삼례에 집결하여 북상하기 시작한 전봉준은, 손화중(孫化中)으로 하여금 관군과 일본군이 나주 쪽으로 기습해 올 것에 대비케 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나주로 가게 하였는데 그 수가 대략 1만에 달하였다. 또한 2차 기포 때에도 나주에서 오권선이 약 3천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합세 하였으며,[44] 이들 농민군 세력은 광주 접계에 있는 침산(砧山)과 광주의 두동, 선암 등지에 진을 치고 나주성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나주를 지키고 있던 수성군은 병력의 지원이나 물자의 보급을 받을 수 없었기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나주목사 민종렬은 김창균(金蒼均)을 선봉으로 삼고, 김성진(金聲振)을 중군(中軍)으로 삼고, 정석진을 후군(後軍)으로 삼아 각각 포군(砲軍) 200명을 거느리고 대오(隊伍)를 엄정하게 하여 주에서 5리 떨어진 석현리(石峴里)에 출진(出陣)하였다.[45] 수성군의 병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임에도 출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농민군

---

43)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 283(이헌영, 『금번집략(錦藩集略)』, (동학농민전쟁사료 4, 여강출판사, 1994, p. 20~24))
44)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 285
45)『금성정의록』, 甲午十月 21일 참조.

에 비해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였다는 점과 농민군에 비해 기동성을 잘 살릴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향리층의 공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성정의록』에서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1894년 10월, 부통장(副統將) 김재환(金在煥)이 대완포(大碗砲)와 장대포(將臺砲)가 무겁고 두터워 편리하지 않다고 하여 포차(砲車)를 만들었는데 제도(制度)가 매우 정교하여 좌우로 돌면서 가고자 하는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46]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포차(砲車)를 활용함으로써 소수의 병력으로도 농민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나주 수성군의 주력 병력은 인근 지역의 포수들을 징집했기에 천보총(千步銃)이나 포차(砲車)를 다루는 것이 용이했을 것이다. 수성군과 농민군의 자세한 전투경과에 관해서는 『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나주목사의 명령을 받은 수성군이 출진하면서 선봉장이었던 김창균이 노쇠하여 추위를 견디지 못하니 도통장 정석진이 앞서간다고 영을 내리고 김창균을 후군에 배치했다.[47]

10월 21일, 진시(辰時, 오전 7~9시). 즉시 행군하면서 정탐병의 보고를 계속 접하니 적도(賊徒) 700여 명이 광주(光州) 침산(砧山)에 주둔하여 진을 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소라를 불며 군을 재촉하여 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나아가 하나의 과녁을 둘 만큼 떨어진 곳에서 먼저 돌격하라고 영을 내렸다. 포수(砲手) 강춘삼(姜春三)이 대완포(大碗砲)를 쏘고 천보총(千步銃)을 연발하여 일제히 적을 죽이니 저항하던 적은 머물지 못하고 각각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지니 남은 자가 없었다. 마침내 적진(賊陣)을 빼앗아 적의 깃발을 빼앗고 본부(本府)에 승첩을 보고하였다. 또 군사 장비를 수습하여 장대(將臺)로 수송하고 평민을 효유하여 예전과 같이 편안히 있도록 하였다.[48]

---

46)『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十月 음력 1894년 10월 일미상.
47)『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十月 음력 1894년 10월 일미상.
48)『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十月 21일 참조.

이때 접응장(接應將) 손상문(孫商文)·박재구(朴在九)·구유술(具有述)·김학술(金鶴述)·전학권(錢學權) 등이 관군에 실수가 있을까 하여 포군 100 명을 거느리고 기치를 크게 펴서 조릿대처럼 둘러싸며 왔는데 위성(威聲)을 더욱 떨쳤다.

군대의 호궤(犒饋)가 끝나고 광주(光州)와 선암(仙巖) 등지를 멀리 바라보니 적도(賊徒) 수만 명이 강변에 열진(列陣)하여 기를 세우고 포를 쏘며 성세(聲勢)를 과장하였다. 도통장이 말하기를 "적이 멀리 있지 않은데, 만약 머뭇거리면서 보기만 하며 적들로 하여금 오래 달리게 한다면 계책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승리를 얻은 군대로 바람처럼 누르고 번개처럼 친다면 형세가 마치 썩은 나무를 꺾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영을 내려 전투에 나아가게 했다.[49]

군대를 지휘하여 먼저 나아가며 말하기를 "뒤에 떨어지는 자는 군율에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군사들이 모두 앞 다투어 나가 일시에 함께 나아가니 후군(後軍)과 접응군(接應軍)이 서로 잇달아 왔다. 적과의 거리가 하나의 시냇물(황룡강)을 사이에 두는 정도에서 적이 조총을 어지럽게 쏘았다. 도통장이 강안에 바싹 접근해서 강춘삼에게 영을 내려 먼저 대완포를 쏘게 하니 포환이 닿은 곳에 적도가 어지럽게 죽었다. 그리하여 적굴을 소탕하고 각 초(哨)에 영을 내려 평민을 침탈하지 말게 하였다.[50]

침산에서의 2번에 걸친 교전으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농민군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금성정의록』과 『난파유고』의 기록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수성군은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로 인하여 도통장(都統將) 정석진이 수성군을 비롯한 향리 군관들에게 지휘관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으며, 또한 침산 전투의 승리는 수성군을 비롯한 인근 지역 관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후 나주를 중심으로 일대의 관군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나주향교도 적극 수성군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였다. 다음은 침산 전투 전후 나주의 수성군이 나주향교에 통문을 보내자 유생 이병수(李炳壽)이 화답한 글이다.

---

49)『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十月 21일 참조.
50)『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十月 21일 참조.

춘추(春秋)의 의리는 난신적자(亂臣賊子)를 누구나 찾아내서 주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동비(東匪)가 법을 어기고 상도(常道)를 어지럽히니 올바른 심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느 누군들 소매를 떨치고 용감히 싸우며 팔을 걷어붙이고 무찌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풍패(豊沛)가 무너지자 경사(京師)가 떨며 두려워하고 읍진(邑鎭)이 무너져 나라를 망치면 백성을 해치니, 아! 또한 심합니다. 문사(文士)는 이미 붓으로 벨 것을 의논하고 무부(武夫)는 들고 일어나 포(砲)로써 죽이고자 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공이 대의를 잡고 있는 것에 힘입어 한 가닥의 양맥(陽脉)을 얻었으니, 어두운 거리의 해와 달처럼, 쓸어가는 물결 속의 지주(砥柱)와 같습니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군대의 기율을 단련하고, 낮부터 새벽까지 군대의 함성이 더욱 세차며, 아전들은 의로움을 본받고 성의 군사들은 용감하며 온 경내의 사녀(士女)들은 충역(忠逆)의 나뉨과 사정(邪正)의 구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의로움으로 군대를 일으키는 움직임이 있다면 진실로 마땅히 메아리처럼 호응하며 그림자처럼 따를 것이니,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은 그 사이에 터럭만큼의 나뉨도 없으니 다만 의려(義旅)에 한스럽습니다. 도를 따라 힘을 길러 때론 감추어(遵養時晦) 날카로움을 쌓아 내보낼 때를 엿보아 묘당(廟堂)의 성산(盛算)과 왕사(王師)의 주개(奏凱)를 듣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마땅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51]

나주 수성군의 승리는 관군 세력에게 있어 값진 승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전쟁이 발발하면서 전라도 지역의 관군은 패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각 고을 수령들이 저항조차 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군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나주 수성군이 나주성의 수성에 성공하고 이후 출병하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관군에게 고무적인 일이었다. 한편 정석진 휘하 수성군과 교전을 벌였던 농민군은 일단 후퇴했으나, 다시 광주의 두동과 나주성 북쪽 40리 거리에 있는 사창, 용진산(聳珍山) 일대에 진을 치고 재차 나주성을 공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전남동학농민혁명사」는 대략 11월 13일로 기록하고 있는데[52], 『난파유고』에서는 수성군과 농민군 사이의 접전이 벌어진 시기를 11월 13일로 기록하고 있고 용진산 전투가 벌어지기 이전까지 수성군은 인근 지역의 관군을 규합하여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51)『금성정의록 갑편』, 甲午十月 21일 참조.
52)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 286

2. 나주 관군의 반격 및 승리

침산(砧山) 전투의 승리 이후 나주 수성군(守城軍)은 활동의 범위를 나주성 인근 지역까지 확장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주를 중심으로 일대의 관군 세력이 합류함에 따라 수성군은 점차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침산 전투 승리를 바탕으로 하여 수성군이 감행한 원정활동을 자세하게 확인 하여, 원정군을 지휘한 정석진의 행보와 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세운 공적 등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11월 8일에 영암(靈巖)에서 온 경보가 시급했고, 동면(東面)에서 위급함을 알리는 보고가 답지(遝至)하였다.[53] 11월 9일에 민종렬이 정석진을 도통장으로, 김재환을 부통장(副統將)으로, 김성진을 중군(中軍)으로, 최문협을 서기(書記)로 삼아 출병케 하였다. 포군 300명을 인솔하고 동창(東倉)으로 달려갔더니 성세가 미친 바에 적들이 도망갔다. 진군하여 금마면(金馬面)의 용두(龍頭)에서 유숙하였다.

영암의 공형(公兄)에게 군령을 내려 적의 동태를 탐문케 하였더니, 공형의 문장(文狀)에, “적들도 명령을 듣고 도망을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10일에 군대의 위력을 과시하고 군사를 돌렸다. 신안원(新安院)을 거쳐 돌아와서 군사를 위로하는 것을 겨우 끝냈는데, 밤에 북면(北面) 등지에서 각 읍의 적들이 나주에 유감을 품고 재산을 약탈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죽여 그 형세를 막기가 어렵다는 급보가 눈이 내리듯 답지하였다.[54]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의 기록을 보면 침산 전투 직후, 농민군과의 대대적인 교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주 수성군과 농민군 간의 교전이 벌어진 것은 11월 13일 용진산(聳珍山)에서의 싸움이었다.

그리하여 민종렬이 곧바로 정석진・김재환・김성진에게 군대를 인솔하여 출전하도록 명령을 하였다.[55] 11월 11일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에 행군하여 죽엽정(竹葉亭)에 머물렀다.

---

53)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54)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55)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11월 12일에 북창(北倉)으로 진군하였는데, 날씨가 춥고 비가 내려 군사들의 심정이 매우 괴로웠다. 바로 적의 동태를 탐문해보았더니, 광주 두동(斗洞)의 뒷산에 주둔해있고 그 무리가 수만에 이른다고 하여 상대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었다.[56]

그러나 관군 세력 또한, 평리(平里)의 집강(執綱) 김대규(金大圭)・삼가(三加)의 집강 유영관(柳永觀)・금안(金安)의 집강 홍봉현(洪鳳鉉)・관동(官洞)의 집강 김경환(金敬煥)・이노(伊老)의 집강 이민상(李敏相)이 각각 민병(民兵) 수백명을 데리고 명령을 받아서 왔다. 후응장(後應將) 손상문(孫商文)・최성순(崔成順)・김창균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군의 기세가 더욱 진작되었다.[57]

비가 오랫동안 개이지 않고 날은 점점 어두워져서 광야에서 진을 치는 것은 그 형세가 매우 불편하여 죽산(竹山)의 뒤편 산꼭대기로 옮겼다. 비가 더욱 내리고 밤도 깊어져서 옷과 무기가 모두 젖었으며 한기가 뼛속까지 침입하였다. 장좌(將佐)가 모두 비의 형세가 이와 같고 산이 높아 바람이 차가운데 적이 만약 갑자기 온다면 적을 맞을 겨를이 없으니 회군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였다.[58]

정석진이 말하기를, “회군해서는 안 될 3가지가 있다. 밤이 어둡고 비가 와서 반드시 적이 오지 않을 형세가 하나이다. 백성이 적의 포학을 괴롭게 여겨서 그들을 소탕해주기를 바라는데 적을 보고 물러난다면 민심이 떠나가고 적의 기세는 갑절이나 커지는 것이 두 번째이다. 어두운 밤에 행군하면 매복의 염려가 있는 것이 세 번째이다. 지금 이미 닭이 울었고 곧 날이 밝을 것이고 비는 개일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59]

다음날 새벽에 탐문해보니, 적이 용진산 위로 옮겨갔다고 하여 마침내 중군 김성진에게 크게 깃발을 내걸어 적을 맞을 대책을 마련하게 하였다. 도통장 정석진・부통장 김재환・향도관(鄕導官) 임주호(林周鎬)와 유의근(柳宜根)・돌격장(突擊將) 강춘삼・천보대장(千步隊將) 전공서(錢公西) 등 33명이 입에 막대기를 물고[含枚] 길

56)『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난파유고에서는 수만에 이른다고 쓰여 있으나 2차 기포 당시 손화중과 최경선이 나주로 이끌고 온 숫자인 1만 정도로 추정.
57)『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58)『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59)『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을 갑절로 재촉하여 적의 동태를 살피다가 갑자기 수천의 적들을 용진의 중봉(中峯)에서 만났다. 아군의 숫자가 적어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깃발을 흔들어 군사를 불러들여 중군으로 하여금 나누어서 한쪽은 왼쪽 산위에 진을 치고 다른 한쪽은 본진(本陣)에 속하게 하였다.

마침 후응장 손상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접응하니 군용(軍容)이 조금 진작되었으나 적은 산위에 자리 잡고 아군은 산 아래에 있어 지형상의 이로움을 잃어버리고 있어 걱정하고 있을 때에 접응장(接應將) 박근욱(朴根旭)·박재구(朴在九)·최윤용·구유술(具有述)이 병사를 이끌고 왔다. 그들을 왼쪽 산꼭대기에 주둔시켜서 적들에게 3방면을 상대하게 하고 다시 민병(民步軍)을 불러 좌우로 나누어 주둔하여 성세를 이루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고무되었다. 임여현(林如賢) 등 수십 명에게 분부하여 산의 왼쪽에 불을 놓아 양도(糧道, 보급로)를 끊게 하였고, 김성진에게 산의 오른쪽에 불을 놓아 도주로를 끊게 하였다.[60]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밤중이 되어 적진에서 포소리가 점점 줄어들기에 강춘삼에게 몸을 바위사이에 의지하여 몰래 적의 동태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과연 저항하는 적이 남아 있지 않고 나무를 잡으며 벼랑을 타고 모두 도망하였다. 일제히 산에 올라 무기를 수습하였다. 적들이 서쪽으로 영광과 삼남(森南) 등지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굴을 소탕하려고 했다. 서쪽의 급보가 오고 성안이 비어있으니 회군하라는 명령이 매우 엄중하였다. 영장(營將) 이원우(李源佑)가 접응하러 중도에 와서 머물렀기 때문에 마침내 홍정(紅亭) 백진사(白進士)에게 격문을 전하여 그에게 계획을 세워 잡게 하고 바로 죽산으로 돌아와서 영장과 함께 군사를 재촉하여 돌아오는데 이르는 곳마다 인민의 칭송이 그치지 않았다.[61]

용진산의 전투도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민군 측의 패배로 끝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민군은 이전처럼 나중 공격에만 힘을 기울일 수 없었으며, 보급로까지 차단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나주를 도모할 방법이 없게 되자 결국 농민군은 북쪽으로 후퇴하였다. 「전남동학농민혁명사」는 농민군의 용진산 전투 패배의 원인을 이전에 벌어졌던 침산 전투 패배로 인한 전력손실과, 당시 농민군 주력 부대가 공

60)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61)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그에 따른 사기 저하에 비중을 두었으나, 이 글에서는 관점을 약간 달리하여 관군의 효율적인 대응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용진산 전투에서 관군이 승리하였다고는 하나, 관군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포진하고 있었고,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군이 농민군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비록, 관군은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몇 번의 전투를 겪었음에도 병력의 손실이 거의 없었고 군대의 체계가 잡혀있어 정예병이라고 부르기에도 손색이 없었다. 또한, 도통장 정석진의 결단과 빠른 상황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퇴각하던 농민군은 몇 차례에 걸친 패배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에 다시 나주 서쪽 방면을 공격하였다. 11월 16일에 도통장 정석진과 부통장 김재환 및 중군장 김성진이 포군 300명을 인솔하여 20리 거리의 자지현(紫芝峴)에 나갔는데, 적이 무안(務安) 고막포(古幕浦)에 있는데, 그 무리가 5만에서 6만 명이라고 하였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다. 밤이 되어 초동시에 진을 쳤는데, 들판은 넓고 군사는 적어서 형세를 이룰 수가 없었다. 마침 전왕(田旺)・지량(知良)・상곡(上谷) 3개 면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통령(統領) 박훈양(朴薰陽)・임노규(林魯圭)・나사집(羅士集)이 민병 수천명을 인솔하고 와서 지휘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들로 하여금 관군의 뒤에 진을 치게 하여 멀리서 성세를 이루고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경계하고, 또 부통장에게 진을 옮겨 합세하게 하였다.[62]

다음날 아침 300명의 포군과 대포군(大砲軍)을 배치하고 먼저 대포를 쏘니 적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산을 내려갔다. 4면에 불을 지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했고 포성이 땅을 울렸다. 아군은 세 갈래의 군사를 1자로 배치하여 접전하려고 했는데, 후응장 최성순・박근욱・구유술이 계속 와서 관군(官軍)과 민병(民兵)이 합쳐서 3,000여명이 되었다. 적과 수다장등(水多長嶝)에서 마주하여 진을 치고 바로 포를 쏘니, 산위의 적들이 해산하였다. 점차로 전진해가니, 적의 대대(大隊)가 가득하고 장등 아래위에 깃발이 늘어선 것이 숲처럼 많았으며 그 기세는 물꼬가 터진 것처럼 급박하였다. 대포군에게 먼저 쏘게 하고 천보조총을 뒤따르게 하였다. 도통

62)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장과 부통장(副統將)이 병사보다 앞장서서 화살과 돌을 회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싸움을 독려하였다. 중군(中軍)이 적진의 왼쪽을 기습공격해서 포환이 향하는 곳마다 적들이 죽었다.[63]

10여 리를 추격하여 고막교(古幕橋)에 이르렀는데, 사람은 많고 다리는 좁은데다가 조수는 불어나서 물에 떨어져 죽은 자가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64]

적이 마침내 궁지에 몰리자 죽음으로써 저항하였다. 지형이 이롭지 않아서 징을 쳐서 군사를 물려 호상산(虎狀山)위에 진을 치게 하였다. 한편, 북쪽의 변고가 시급하여 회군하라는 장령이 연이어 이르렀으나 적과 대치해 있으며, 밤에 회군하면 뒤를 밟을 걱정이 있어 이유를 아뢰고 진에 머물러 밤을 지냈다. 해운(海雲)이 참담하고 삭풍(朔風)이 매서웠다. 부통장(副統將)과 천보군(千步軍)이 길의 왼쪽에 매복하여 그들의 동정을 살피다가 갑자기 포를 쏘아 10여 명의 적을 죽이니, 저들이 모두 놀라 산에 올라가서 감히 내려오지 않았다. 마침내 군사들을 단속하여 서서히 군대를 철수하였다.[65]

11월 18일 정석진 휘하 수성군이 복귀하자 민종렬이 크게 칭찬하여 말하기를 "뜻밖에 간성지재(干城之才,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인재)가 내 막하(幕下)에 있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지키고 방비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고막의 남은 적들을 끝내 제어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함평과 무안등지에서 비도가 일어나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하고 순리를 어긴다는 급보가 답지하니 장대가 특별히 엄명을 내려 먼저 중군 김성진에게 포군 50명을 인솔하게 하였다.[66]

11월 20일 밤에 서부(西部)의 장등에 나가서 주둔하니 민병의 통령 조맹균(曺孟均)이 합세하여 진에 머물렀다. 11월 21일 아침에 도통장 정석진과 도위장(都衛將) 손상문에게 포군(砲軍) 300명을 인솔하고 급히 행군해서 서쪽지방을 구원하게 명령하여 장등의 선군(先軍)과 합세하였다. 군관 김일운(金一云)과 김영환(金永煥)에게 포군 5명을 인솔하여 먼저 적의 동태를 살피게 하였더니, "적이 서창(西倉)의 세곡

63)『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64)『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65)『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66)『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稅穀)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급보를 했기 때문에 말을 달려 갑절이나 빨리 갔다.[67]

적이 아군을 보고 고막산(古幕山)으로 달아나서 바로 20여 리를 추격하였더니 사람과 말이 지쳐서 군대를 주둔하려고 했는데, 선군이 이미 적과 상대하여 화급하게 진군해서 숨도 고르지 못했으나, 형세가 매우 위급하였고 적이 산에서 포를 쏘았기 때문에 조금 병사를 쉬게 하고 선군과 후군이 합세하여 산 가까이에 가서 주둔하였다. 군용이 비로소 진작되었으나 날이 어두워서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호장산(虎壯山)에 옮겨 주둔하였다. 적들이 기세가 꺾여 도망가려는 조짐이 있기에 중군 김성진에게 군사를 인솔하여 먼저 가게 하였다. 도통장 정석진과 도위장 손상문이 포군 40명씩을 인솔하고 호장산의 오목한 곳에 매복하였다. 선군의 먼 행군이 갑절이나 빨리 온다면 전군이 지현(芝峴)에 진을 치고 후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놓고 밤에 군사를 돌렸다.[68]

이 때, 농민군들은 수성군과의 교전을 될 수 있으면 피하면서 한편으로 나주를 공격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를 하고 있었다. 탈취한 세곡 등으로 군량을 보급하고 다른 지역의 농민군들을 끌어들여 나주 공격에 임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농민군들이 나주성 공격에 가담한 것은 아마도 농민군들도 더 이상 어찌 할 방도가 없게 되자 가능한 한 모든 병력을 동원하게 된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기록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69]

홍덕현감이 첩보를 드립니다. 본현의 경내에 일찍이 동학의 무리가 있었는데, 지난 달 보름 이후로 나주 수성군을 정벌한다고 칭하고 간 뒤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70]

11월 22일에 북면의 비도가 용진산의 패배에 유감을 품고 5~6개 읍의 도당(徒黨)을 불러 모았는데, 성세가 대단하여 백성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아 인연(人煙)이

67)『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68)『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69)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288
70)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289(「순문선봉진기록」, 『동학란기록』상, 국사편찬위원회, 1959. p.567)

끊어지려 하였다. 급보가 왔으나 여러 차례 싸움을 한 뒤라 장졸이 모두 피로하여 휴식하고 적을 상대하려고 하였다. 11월 23일에 수만 명의 적들이 금안면 남산촌에 주둔하였는데, 읍과의 거리가 10리 정도로 가까웠다. 성을 도륙하려 한다는 소리가 나왔고, 이날 밤 농민군은 북문(北門) 밖의 함박산(咸朴山)까지 진격해왔다.[71]

11월 24일에 장대에서 위무(威武)를 분발하여 도통장 정석진에게 군대를 정돈하여 출정하도록 명하면서 말하기를, "출정하여 토벌하는 일은 도통(都統)의 역할이 중요하니 경솔하게 상대하지 말고 일심으로 협력하라"고 하였다. 또한 도위장 손상문에게 화포군(火砲軍)과 천보조총군(千步鳥銃軍)을 인솔하고 전진해서 적을 상대하도록 명령하고, 초관(哨官) 박성로(朴成老)에게 100명의 포군을 데리고 산길을 따라 그 배후를 기습하여 교란하게 하였다. 별장(別將) 전학권에게 100명의 포군을 인솔하고 들길을 따라 그 오른쪽을 기습하게 하였는데, 소위 3개 방면의 기병이라는 것이었다.

선군 정석진과 손상문이 군사를 인솔하고 남산에 바로 진입하였는데, 적의 깃발이 하늘을 덮고 적의 막사가 산에 가득하였다. 김기옥이 천보군을 이끌고 누워서 탄약을 재우고 적 진영의 주위로 용감하게 가서 일제히 포를 쏘았다. 장령들이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포를 난사하며 전진하였고, 적도 응사하며 크게 함성을 질렀으니, 양 진영의 총소리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질듯하고 화염이 하늘에 가득하였다. 군사들이 일제히 포를 쏘면 저들도 일제히 응사하였다. 장수들이 힘을 내어 진격하니 적들이 바람에 쓰러지듯 넘어졌다. 이에 단병(短兵, 칼이나 창으로 하는 싸움)으로 접전하니 적이 마침내 도망을 갔다. 관군이 더욱 용맹을 발휘하여 좌우에서 추격하니 시체가 엉켜 들을 메웠고 피가 흘러 도랑을 이루었다.[72]

나주 수성군과 농민군 간의 최후의 결전에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이때의 모습을 두고 황현은 "죽은 자와 포로의 수를 헤아릴 수도 없었다." 라고 기록하였으며, 『금성정의록』에는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했고, 흐르는 피가 냇물을 이루었다"고 적고 있다.[73] 이 전투에서 정석진 또한 300명 가량의 포로를 잡아들였

71)『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72)『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73)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290

다는 내용이 「갑오군공록』에 쓰여 있다. 11월 24일 남산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농민군은 나주에 대한 공격의지를 상실 하였고 더 이상의 병력 충원 또한 불가능했다. 또한 이 날 조정에서 나주목사를 초토사(招討使)로 제수하는 제서(制書) 가 내려와 나주가 이제는 농민군 진압작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때의 기록을 『난파유고』의 '갑오토평일기'에서는

온 성이 뛰고 기쁨이 전군(全軍)을 움직였으며 금산이 빛을 더했고 영수(靈水)가 맑음을 드러내었다. 한층 엄중하게 방비를 하여 이로부터 끝내 침범하지 못하였고, 관군은 여러차례 싸움을 치루어서 적들이 안중에 없었다.[74]

라고 말하면서 나주에서 농민군이 물러간 것을 자축하였다. 더 이상 나주에서는 농민군 세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남산 전투가 끝나고 나주에 초토영(招討營)이 설치되면서 나주 수성군 세력은 다른 지역의 농민군 잔당 세력 진압에 주력하는데 이후 수성군의 활동 상황을 『난파유고』의 갑오토평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12월 3일 남평의 수리(首吏)인 정남홍(丁南洪)이 발괄(白活)을 급히 보내오기를, "적의 괴수 최경선(崔敬善)이 바로 본군을 무너뜨려 사또가 부금(符金, 부절과 도장)을 빼앗기고 어깨에 탄알을 맞아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를 내어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초토영(招討營)에서 특별히 도통장 정석진・도위장 손상문・부통장 김재환・중군장 김성진・참모(參謀) 박재구 등에게 명하여 정예의 포군 300명을 인솔하고 갑절이나 빨리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75]

12월 4일에 남평의 경계에 당도하니 본군의 이교(吏校)가 악기를 갖추어 맞이하고 길에 분주하였다. 후봉(後峰)의 월연대(月延臺)에 주둔하여 적의 동태를 탐문하였더니, "적이 소문을 듣고 능주(綾州) 등지로 향했다"고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산 위에서 머물렀다.[76]

---

74)『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75)『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76)『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12월 6일에 장흥(長興)에서 성이 거의 함락되기에 이르렀다는 비보(飛報)가 갑자기 왔다.[77]

12월 8일에 강진(康津) 등지에 적들이 창궐한다는 급보가 다시 이르렀다. 초토영에서 크게 장좌(將佐, 보좌하는 장수)를 모아 나가서 토벌할 것을 의논하고 특별히 분부를 내리기를, "병법에 멀리서 적을 헤아리기는 어렵다. 바로 영암에 내려가서 그 허실을 탐문하는 것이 만전의 대책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도통장 정석진·부통장 김재환·중군 김성진에게 천보조총군 300명과 창군(鎗軍) 200명을 인솔하게 하였다. 또한 비밀리에 영암 병영의 각처에 군령을 내려 군병을 엄중히 단속하여 초토영 도통장의 지휘를 기다려서 거행하라고 하였고, 또 동오면(東五面)의 의병 통령인 유기연(柳紀淵)에게 병사 1,000명을 데리고 신안원에서 기다렸다가 도통장과 합세하여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명령을 재촉하여 출발해서 영산강(榮山江)을 건너 영암의 경계에 당도해 동오면의 군사와 합세하니 군용이 크게 진작되었다. 날이 이미 어두웠고, 내린 눈빛이 차가워서 횃불을 들고 바로 영암의 화수원(火燧院)으로 향하였다.[78]

화수원에 이르러서 산 옆의 언덕에 의지하여 진을 치고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밤새 번을 돌았다. 날이 밝기 전에 행군을 하려고 할 때에 영암 공형의 공문이 한꺼번에 5~6차례나 연이어 도착하여, "적들이 지금 성을 침범하였다"고 했다. 또 들으니, "병영이 위태롭기가 누란(累卵)과 같다"고 하였다. 영암의 수령인 남기원(南起元)이 문을 나와 군대를 맞이했는데, 깃발과 북이 질서정연하고 군용이 엄숙하였다. 대월루(待月樓)에 진을 쳤다. 비보에, "병영이 이미 함락되었고, 동도가 뒤를 따라 갑자기 쳐들어 와서 인심이 당황하여 울고 놀라서 어찌 할 줄을 모른다"고 하였다.[79]

병영은 이미 함락되었고 영암은 위급한데, 위급한 곳을 버리고 함락된 성을 구원하는 것은 형세상 매우 온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초토영에 사유를 열거하여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의 수비를 엄중히 갖추었다. 무안의 비도가 강을

77)『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78)『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79)『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건너 침입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연이어 왔기 때문에 병사를 보내어 황치(黃峙)와 덕진(德津)의 요충지를 막았다. 적이 초토영의 구원군이 와서 기다린다는 소문을 듣고 감히 경내를 침범하지 못하였다. 지킨 지 10여 일이 지나 경군과 일본군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군사를 돌렸다. 민공이 특별히 칭찬하여 말하기를, “장성보다 낫다고 한 것은 이 사람을 말할 것이다”라고 하고, 출정한 공로를 위로하였다. 이후로 다시는 군대를 내보내지 않았다.[80]

12월 15일, 계속해서 경군이 주의 경계에 도착했다. 이규태(李圭泰)・이두황(李斗璜)을 좌우(左右) 선봉으로 삼아 김개남을 잡아서 목을 베고 수급(首級)을 서울에 보냈다. 전봉준・최경선・손화중 세 괴수는 차례로 체포하여 나주 옥에 가두었다[81].

80) 『난파유고』, 갑오토평일기 참조.
81) 『금성정의록 갑편』, 갑년 12월 참조.

IV. 1895년 나주평적비 수립(竪立)과 나주 관민의 동향

1. 나주목사 민종렬의 전공 보고

1894년의 농민반란이 진압되고 나주목사 민종렬은 나주에서 벌어진 전투에 관한 장계를 조정에 올려 보냈다. 이 시기를 『금성정의록』은 을미년 정월인 1895년 1월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 장계의 내용에는 나주 수성군의 활동 과정과 그에 따른 휘하 장수 및 군졸들의 전공을 기록하였는데, 민종렬이 올린 장계에서 정석진(정태완)의 공을 상당히 높게 기록하여 본고에서는 이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민종렬이 올린 장계의 일부이며 『금성정의록』 을편에 기록되어 있는 '초토사보군공별지(招討使報軍功別紙)'의 내용이다.

작년 갑오년(甲午年, 1894)에 동비(東匪)가 창궐하여 열읍이 약탈을 당하고 남은 것이 없을 때 나주(羅州)의 정태완(鄭台完)이 분격(忿激)을 이기지 못해 재산을 내어 의병을 만들어 아전과 백성이 협동하여 10개월간 성지(城池)를 사수하였다.[82]

7월 초5일에 적도(賊徒) 수만 명이 서문으로 직행하여 성세(聲勢)가 매우 위급했다. 정태완이 아전과 백성을 엄히 단속하고 항오(行伍)를 나누어 정하고 시석(矢石)을 피하지 않고 크게 한번 싸워서 적도 1백여 명을 잡았고 군기를 셀 수 없이 획득하였다.[83]

10월 21일에 광주(光州) 침산(砧山)에 적도가 모여들었다. 거괴(巨魁) 손화중이 1만여 명이나 거느리고 아침저녁 사이에 나주를 도륙할 것이라고 날마다 위협하는 말을 보내니 여러 사람들이 놀라고 성 안이 들끓었다. 정태완이 도통장의 소임으로 장령을 격려하고 군민(軍民)을 거느리고 앞 뒤 양군(兩軍)이 성을 나가 침산 아래에 당도하였다. 적도 수천 명이 침산 뒷 봉우리에 모여 진을 치고 있었고, 후당(後黨)이 무수히 많이 광야에 포진하고 있었다. 정태완은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친히 포군 1백여 명을 거느리고 사졸보다 앞서서 먼저 침산을 깨뜨리고 그대로 파죽지세로 포를 쏘며 급히 공격하니 후진(後陣)의 적도가 수족을 둘 데가 없어 기

82) 『금성정의록 을편』, 招討使報軍功別紙 참조.
83) 『금성정의록 을편』, 招討使報軍功別紙 참조.

세를 보고 도망갔다.[84]

11월 11일에 동괴(東魁)가 창궐하여 수만을 거느리고 주북(州北) 40리 지점인 북창(北倉) 등지에 모여서 주둔하고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며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니 5, 6면방(面坊)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도통장 정태완이 통분을 이기지 못해 군장(軍將)을 영솔하고 우영(右營)과 합세하여 출군하였다. 뜻밖에도 일제히 토벌함이 귀신같이 빨라 적도는 패하여 용진산(聳珍山) 위로 돌아갔다.[85]

11월 16일에 무안(務安) 거괴(巨魁)가 주(州) 서쪽 30리 고막포(古幕浦)에 모여 주둔하고 있다는 경보가 연달아 급하게 도착하였다. 정태완은 또 군장(軍將)을 영솔하고 민병을 소집하여 적과 10리 쯤 떨어진 초동시(草洞市)에 나가 진을 치고 적세를 엿보니 그 수가 숲처럼 많아 갑자기 가볍게 공격하기 어렵고 중과부적이라 힘으로 취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먼저 뛰어난 포군 1백여 명을 장등(長嶝)의 요로에 매복해 두고 민병을 지휘하여 요응지세(遙應之勢, 멀리서 응하는 태세)로 삼고 합병(合兵) 3진(陣) 또한 기각지세(掎角之勢)로 삼아 기를 눕히고 북을 쉬게 하고 잠시 겁약한 형세를 보였다.[86]

11월 17일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 저 적이 과연 가벼이 보고 양쪽 길로 갈래를 나누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서 불을 붙여 포를 쏘며 삼대[麻] 처럼 빽빽이 모여섰다. 관군이 한 편으로는 대완포를 쏘고 앞뒤 복병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포를 쏘며 바람처럼 누르고 번개처럼 쳤다. 적도(賊徒)가 본래 오합지졸로 어찌 백 명의 충의지군(忠義之軍)을 당해낼 수 있었겠는가. 일시에 풍비박산하였다.[87] 정태완이 몸소 사졸보다 앞장서서 10리를 추격하자 쓰러져 있는 시체가 서로 베개로 할 정도였고 획득한 기계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또 밤에 싸우면서 죽인 수도 셀 수 없었다. 북쪽에서 경보가 또 도착하였는데 성의 수비가 소홀하니 즉시 회군하라는 내용이었다. 북쪽의 경보는 용진산에서 패한 적이 아직도 화심(禍心)을 품고 다시 10여 읍의 동류를 이끌어 수만 명을 불러 모아 3곳에 나누어 진을 치고 성을

84) 『금성정의록 을편』, 招討使報軍功別紙 참조.
85) 『금성정의록 을편』, 招討使報軍功別紙 참조.
86) 『금성정의록 을편』, 招討使報軍功別紙 참조.
87) 『금성정의록 을편』, 招討使報軍功別紙 참조.

도륙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농사짓는 소를 잡아먹고 인민을 살해하는 재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형세가 놀랍고 패악스럽고 그 광경이 위태로워 단단히 지키면서 잠시 동정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88]

11월 24일에 정태완이 조금 해이해진 것을 보고 뛰어난 포군 수백 명을 3로(三路)로 나누어 가게하고, 기병(奇兵)은 매우 빠르게 추격하였다. 금안면(金安面) 남산촌(南山村) 뒷산 고개에 도착하여 일제히 적을 죽이니 적의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350여 명을 총으로 쏘아 죽였고 획득한 기계와 말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로부터 적세가 크게 꺾여 다시는 광주(光州)·나주(羅州)·함평(咸平)·무안(務安)의 땅에서 난을 일으키지 않았다. 정태완이 또 남쪽으로 영암(靈巖)·동보(東保)·남평(南平)을 구제하기 위해 6차례 출전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모두가 도통장 정태완이 충의를 북돋우고 재산을 내어 성을 수호하고 임시응변하고 사졸에게 솔선수범하고 관원과 백성들을 화합한 힘 때문이었다.[89]

2. 평적비 건립 및 연회

현재 나주 금성관 한켠에 나주목사 민종렬의 전과를 기리기 위한 토평비가 세워져 있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찬(撰)한 것으로 원래는 정수루 앞에 있던 것을 현재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이다.[90] 기우만의 평적비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바야흐로 적이 창궐함이 앞뒤로 9개월이었다. 생민의 목숨이 어육(魚肉)이 되어 마치 홍수가 끝없는 것과 같았다. 훔쳐보니 이와 같이 신(神)처럼 빠른데 어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바이겠는가. 나는 나주가 없었다면 호남이 없었고, 민공이 없었다면 나주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전 호남의 생민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실낱같은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은 모두 그의 공이니 마땅히 그 일을 노래하고 금석에 새겨야 하리라. 공은 그 공을 갖지 않고 왕령(王靈)에게 돌렸으며, 인화(人和)와 졸복(卒服)의 그 아름다운 일로 또 장리(將吏)가 의로움을 나타낸 것에 양보하였다. 다만 열읍이 기세를 보고 문을 열어 받아들인 것을 보면 장리가 먼저 물들어 싹을

88) 『금성정의록 을편』, 招討使報軍功別紙 참조.
89) 『금성정의록 을편』, 招討使報軍功別紙 참조.
90) 이상식·박맹수·홍영기,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p. 297

틔우지 않음이 없었다. 그렇다면 공이 아름다움을 양보한 것은 연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나주 인사들이 장차 돌에 새겨 노래하려고 하면서 우만(宇萬)으로 하여금 그 일을 기록하고 명(銘)을 짓게 하는데, 사인(士人) 양상태(梁相泰)·임긍규(林肯圭)가 그 심부름을 하였다. 공(功)은 크고 문(文)은 짧아서 멀리 보이기에 부족하지만, 또한 혜택을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니 감히 사양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91]

국조 5백년에 문교(文敎)가 이미 융성하였네. 오랜 융성에 쇠퇴하기도 하여 이단의 말이 어지럽네. 마치 주(周)나라 때 노자(老子) 같고 한(漢)나라 때 석가(釋迦) 같네. 색은행괴(索隱行怪)를 서술함은 뒷날 있을 후환 때문이라네. 지금의 그름[邪] 과 같은 것은 옛날에도 기댈 곳이 없었네. 어리석은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난을 일으켰네. 현명한 이가 어리석게 구는데도 무리들이 번다하네. 화의 싹과 사나운 단계는 그 소굴을 양호(兩湖)에 두었네. 풍문을 듣고 달려가 군현(郡縣)은 묶을 수가 없었다네. 왕사(王師)의 명을 거역하고, 완성(完城)을 무너뜨려 점거하였네. 우뚝 솟은 금악(錦嶽)이여 서 있기가 숫돌 같네. 목민관은 민공이니 칼을 안고 일어났네. 진(鎭)이 있고 장수가 있으니 의로운 기운 함께 하네. 오직 승(丞)과 사(史)도 몸을 다 바쳤다네. 적이 편지를 보내 엿보니 보낸 말이 패악스럽네. 뒷면에 적어 보낸 16자에 적의 등엔 땀이 흐르네. 다른 때에 소탕함은 그 조짐 여기에 있었다네.

모든 호남이 온전하게 살 수 있음은 그가 아니면 누구를 믿겠는가. 완전히 둘러싼 남쪽이 궤멸되니 이에 공(功)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금성에서 적과 싸워 이미 그 적괴를 죽였다네. 서문(西門)의 승리와 사창(社倉)의 전투라네. 이미 예봉을 꺾고 그 소굴을 소탕하였네. 용진산(聳珍山)으로 급박히 쫓아가고 고막(古幕)에서 깨끗이 소탕하였네. 남산(南山)으로 밤에 달아나니 바람소리와 학의 눈물이 되었네. 공께서 지나치게 따지지 말라 하니 위협에 따른 자는 슬퍼할 만하다. 기가 막히고 담이 떨어지니 떨어져 날리기가 썩은 나무 같았네. 왕사(王師)가 남정하여 이에 그 다스림을 강구하였네. 스스로 새롭게 됨을 허락하여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네. 적이 평정되고 그름[邪] 이 종식되기가 신속하여 지체되지 않네. 나라에는 기둥이 되었고 유학(儒學)에는 표준이 되었네. 돌에 새겨 칭송하니 영원히 없어지지 말라. 공께서 말하기를 왕령(王靈) 때문이지 태수(太守)에게는 공이 없다. 인화(人和)와 졸복(卒服)은 아전 누구누구 때문이라네. 덕(德)을 돌리고 아름다움을 사양하니 이로써 영예가

91) 『금성정의록 을편』, 討平後寄贈鄭將軍書(松沙 奇宇萬) 참조.

되었네. 우리 부녀자와 아들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네.[92]

또한, 농민군과 나주성 서문(西門)에서 첫 전투가 있은 지 1년이 되는 날에 나주 목사 민종렬과 전투에 참여했던 휘하 향리층 인사들이 모여 연회를 열고 그때를 기념하였다는 기록이 『난파유고』에 남아있다. 연회의 내용 중 민종렬이 시를 지어 정석진과 오계수 등이 차운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농민군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 이들은 나주에서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특히 정석진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나주 향리층을 대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5년 7월 초5일, 작년에 서성루(西城樓)에서 적을 깨뜨린 날이었다. 요좌(僚佐)와 빈객(賓客)을 크게 모아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겼다. 그 잔치를 일러 '지희'(志喜)라고 하고 그 즐거움을 일러 '파진'(破陣)이라 하였다. 다음은 연회에서 주고받은 시문이다.

去年今日錦西城 지난 해 바로 오늘 금성의 서쪽에서
三百官軍破賊兵 3백 명의 관군이 적병을 깨뜨렸네.
同我忠勤諸將領 나와 함께한 충성스럽고 근실하였던 여러 장령들은
屹然砥柱得全名 우뚝 지주(砥柱)가 되어 이름을 온전히 하였네.

八朔辛勤守此城 8개월간 고생하여 이 성을 지켜내니
人和元不在多兵 인화(人和)는 원래부터 병사의 수에 있지 않네.
下回竟奏南山捷 아래로 돌아 마침내 남산의 승리를 아뢰니
無愧湖維保障名 호남 지역을 지켰다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다네.

官軍喜氣動全城 관군의 기쁜 기운이 온 성(城)을 움직이니
周歲塵晴已釋兵 한 해 만에 티끌이 맑아져 이미 무기를 풀었네.
祭罷敎聽絲管響 제사를 마치고 음악소리를 듣게하니
聊將破陣錫嘉名 파진(破陣)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내려주시네.

92) 『금성정의록 을편』, 討平後寄贈鄭將軍書(松沙 奇宇萬) 참조.

山河鞏固奠城基 산하가 공고하여 성 터를 정하고
日月光明竪義旗 해와 달이 광명하여 의로운 기를 세우네.
擿埴冥行神賜誠 적식명행은 신께서 정성을 주신것
我心無愧上天知 내 마음 부끄럼 없는 것 하늘은 알리라.
(이때 민공이 꿈에 명행적식(冥行擿埴) 4 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 시를 지었다.)

차운(次韻) 도통장 정석진(都統將 鄭錫珍)
東徒猖獗敢窺城 동도(東徒)가 창궐하여 감히 성을 엿보니
寂寞南湖募義兵 적막한 남호(南湖)에 의병을 모았다네.
奉賀戎壇招討使 융단(戎壇)에 올라 초토사(招討使) 됨을 경하하니
豊功千載不能名 풍성한 공은 천년이 지나도 이름할 수가 없네.

三百官軍共守兵 3백 명의 관군이 함께 성을 지키니
天心默祐掃妖兵 천심이 말없이 도와 요사스런 병사를 쓸어내었네.
出師尙乏涓埃報 출사를 하여도 아직 조그마한 승전보가 없으니
慚愧匪才統將名 재주 없이 통장(統將)이란 이름 부끄럽네.

今年此日倚西城 금년 이 날에 서성(西城)에 기대니
錦水東流已洗兵 금성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 이미 병기를 씻었네.
化裏羣情安百堵 교화 속에 백성들은 모두 안도하고
好將宴飮永留名 좋은 장수들 잔치를 벌여 영원히 이름을 남기네.

차운(次韻) 난와 오계수(難窩 吳繼洙)
南來明府作長城 남쪽으로 명부(明府)에 오셔서 장성(長城)을 만드니
自有胸中數萬兵 스스로 흉중에 수만의 병사 있네.
匪賊聞之驚破膽 비적이 듣고 놀라 담(膽)이 떨어지니
嵬勳盛烈可能名 큰 공훈 성대한 공열 이름할 수 있겠는가.

周年拒守一孤城 한 해 동안 파수한 한 고성(孤城)은
壯士同心奮義兵 장사(壯士)가 한 마음으로 의병을 떨쳤네.

夜報捷書明似晝 밤에 보고한 승리의 글은 낮처럼 환하고
豊碑崩劣不磨名 큰 비석 우뚝하여 이름 지울 수가 없네.

前秋東匪敢窺城 지난 가을 동비(東匪)가 감히 성을 엿보았는데
此日南湖已解兵 오늘 남호(南湖)는 이미 병기를 풀었네.
復覩升平皆聖德 다시 승평(升平)을 봄은 모두 임금의 덕이니
絃歌新奏樂章名 거문고 노래에 새로 악장(樂章)의 이름 아뢰네.[93]

3. 나주 유생의 정석진 포상 건의 및 실현

위와 같이 나주목사 민종렬과 그 휘하 농민군 반란 진압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진압이 끝난 후 그것이 나주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나주 내에서는 그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지위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석진의 경우에는 그 군공을 인정받기는 했으되, 그가 활약한 것에 비해 미미한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석진 이외, 농민군 진압에 참여했던 일부 향리층 인사들도 조정에게서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들은 조정에게 보상을 요구하고자 장계를 올리게 된다. 다음은 나주 유생(儒生)들이 모여 함께 조정에 올린 포상 건에 대한 장계의 내용이다.

나주 유생 양상형(梁相衡)・구계수(具繼洙)・박인양(朴寅陽) 등은 삼가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순상(巡相) 합하(閤下)께 글을 올립니다. 공(功)이 있으면 반드시 포상하되 먼 곳에 있다고 하여 차이를 두지 않고, 사람을 쓸 때에 현명한 것만을 따져 관계가 멀거나 신분이 천하다고 하여 버리지 않는 것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고 신민(臣民)을 권장하는 도(道)인 것은 지난 세대에 이미 있던 일이고 오늘날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업드려 생각건대 지난해(1894년) 동도가 미쳐 날뛴 것은 예전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백성의 재산을 없애며 벌과 개미처럼 모여 이리처럼 지독하고 솔개처럼 날개를 펴서 연이어 주군(州郡)을 무너뜨려 장리(長吏)를 죽였는데, 전체 호남에서 그 칼날을 당하지 않은 곳은 이

93) 『금성정의록 을편』, 討平後寄贈鄭將軍書 참조.

금성 한 개 읍뿐입니다. 의연하게 스스로 지키고 굳세게 꺾이지 않고 어른이나 아이나 힘을 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실로 우리의 훌륭한 수령의 밝은 교화에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단을 배척하고 정도(正道)를 떠받치어 명교(名敎)에 큰 공이 있었고, 들어와서 지키고, 나아가서 싸워 비류를 놀라게 하여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수성군관(守城軍官)이 충성과 용기를 내어 죽을 힘을 다하고 비바람을 맞는 것을 사양하지 않으며 칼날을 무릅쓰고 피하지 않고서 10달 동안 성을 지키고 5번의 승리를 알렸으니 의와 충성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94]

그 중에도 명성과 공적이 모두 드러나서 향촌 백성과 부로(父老)의 칭송을 받은 자를 말한다면, 도통장인 호장(戶長) 정태완입니다. 공형으로서 아전의 일을 맡아하며, 나라를 위해 집안을 잊어버리고 위기에 직면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출정하여 베고 잡은 적의 수효는 셀 수가 없습니다. 서문에서 적을 격파한 것을 시작으로 침산·사창·고막·용진 등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남산에서 한번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직접 화살과 돌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백성을 물과 불의 가운데에서 구제하여 향촌 백성들에게 오늘이 있게 하였는데, 공격과 방어에 적절함을 얻은 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 고마움을 새겨 잊을 수가 없는데, 더욱이 동쪽으로 남평을, 남쪽으로 영암을 구원하여 소문이 이르는 곳마다 적들이 멀리 달아났고 병사를 모아 위로하여 조금도 범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민이 그에 의지하여 안정되었고 이웃 경내가 그에 의지하여 보호가 되었습니다.[95]

비록 옛날의 이름난 장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능가하겠습니까? 그 드러난 공은 이보다 성대합니다. 아! 주려(柱礪)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임금을 위해 죽은 것도 옛사람은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했고, 낭심(狼瞫)이 버림을 받았지만, 군사를 일으킨 것을 군자는 충성이라고 여겼는데, 하물며 뛰어난 공을 세운 이 사람이야 말할 것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생각컨대 영읍(營邑)에서 실제 공적을 갖추어 임금에게 올리면 포상의 은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조정의 특별한 은혜는 저

94) 『난파유고』, 請褒狀 참조.
95) 『난파유고』, 請褒狀 참조.

희들의 군더더기 글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끝내 감추어지는 것이 두렵고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에 감히 공공의 논의를 묻고 여론을 정하여 순선(旬宣)이 계신 곳에 우러러 호소합니다. 이 사장(事狀)을 들어 폐하께 전달하여 정태완 등 여러 장수들의 울적한 마음을 풀어주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을미년(乙未年, 1895) 진사(進士) 나동륜(羅東綸)・김승목(金承木), 유생(儒生) 임기홍(林基洪)・이탁(李鐸)・민의식(閔毅植) 등 25명.[96]

이 외에도 모두 그 내용을 실을 수는 없으나 상당한 수가 조정에 상소(上疏)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써 정석진은 12월에 특별히 해남군수를 제수 받게 되었다.[97]

96)『난파유고』, 請褒狀 참조.
97)『난파유고』, 墓碣名.

V. 맺음말

고부봉기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동학농민전쟁은 이 지역에서도 1차봉기, 집강소시기, 2차봉기의 세 시기에 걸쳐 각 지역에서 일어났다. 동학농민운동이 한참일 무렵 손화중 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과 나주수성군이 맞닥뜨린다. 그러나 금성산에 진을 친 나주수성군은 끝까지 저항해 당시 충청도에서 공주 이남의 군·현·목 가운데 동학군에 함락되지 않는 유일한 고을로 남는다.

3월 하순경 백산기포 때부터 많은 도인들과 같이 참여했던 나주지역 동학군들은 전주성 점령이후 5월 중순경에 나주로 돌아왔다. 6월 중순에는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을 개혁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주는 처음부터 농민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농민군의 성내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목사 민종렬(閔鍾烈)주도로 4월부터 수성군을 조직해 나주성을 방어하여 동학농민군과 8월까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6월 하순경 태인·정읍 동학군 수천명을 모아 최경선(崔敬善) 대접주가 이끌고 나주로 내려와 7월 5일의 대공세를 처음으로 폈으나 실패하였다. 나주성은 천혜의 요지여서 공격이 여의치 않았으며 수성군의 병력과 무기도 만만치 않았다. 8월 13일에는 전봉준(全琫準)이 직접 전라감사 김학진의 신임장을 지니고 나주목사 민종렬(閔鍾烈)을 찾아가 농민군과의 협조를 벌였으나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나주를 점령하지 못한 동학군은 최경선이 이끄는 많은 동학군을 나주에 주둔시켜야 했으며, 10월에는 손화중(孫華仲) 대접주 휘하의 동학군까지 투입하여 북상계획에 많은 차질을 가져왔다. 10월에 들어와 나주를 둘러싸고 광주에 집결한 동학농민군과 나주 수성군 사이에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10월28일 민종렬은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로 임명을 받고 초토영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동학농민군 토벌에 임하였다.

10월 하순부터 나주 수성군이 역습으로 나왔다. 침산(砧山)전투, 용진산(聳珍山)전투, 고막포(古幕浦)전투 등 전후 6차례의 공방전이 있었으나 동학농민군 쪽이 점점 불리하게 되었다. 11월 23일에 오권선이 이끄는 동학군은 나주성을 최후로 공격하기 위해 함박산까지 진격했으나 무기의 열세와, 강추위에 전투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수성군(守城軍)의 기습을 받고 무너지고 말았다. 이것이 실패로 끝난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나주성 공격이었다.

도통장 정석진(都統將鄭錫珍)이 이끄는 나주 수성군은 11월 24일 남산촌에 집결해 있던 동학농민군들을 기습하여 거의 몰살한 것을 비롯해, 금안면전투에서도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나주 향리층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주도적으로 수성군을 조직하여 나주성을 수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농민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은 전라도 전역에서 나주가 유일하였다.

향리들은 평소에는 異族은 물론 同族끼리도 향촌사회의 주도권 장악을 놓고 끊임없이 긴장 대립하였지만, 그들의 집단이익에 반하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즉각 단결하여 가차없이 대처하는 계층이었다. 나주의 향리층도 어느 계층보다 발빠르게 변신하고 새로운 질서에 편입하고 하였겠지만, 모든 일이 그들의 뜻대로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향리층은 지배체제의 중간층을 형성하여 아래로는 사회적 모순이 첨예하기 드러나는 현장에서 농민들과 부딪혀야 했고, 위로는 조정과 양반관료와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했다. 때로는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농민 저항에 부딪혀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향촌사회에서의 위상이 실추되는 곤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1894년 농민전쟁에 대한 연구는 향촌사회지배층의 동향을 통해 향반층과 부농층이 농민군의 주도세력으로, 이들을 진압하는 반농민군 세력은 문벌가문과 읍치세력임이 검토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참 고 문 헌

1. 사료

・李炳壽,「錦城正義錄』

・鄭錫珍,『蘭破遺稿』

・오지영,『동학사』

・황현,『오하기문』

2. 단행본

・박맹수,「사료로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09.

・김종익,『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5.

・이상식・박맹수・홍영기 공저,『전남동학 동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이상식 편저,『동학농민혁명과 광주・전남』,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4;.

3. 연구논문

・배항섭,「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19.

・박이준,「『금성정의록』을 통해 본 1894년 농민전쟁과 나주」,『나주시사』(근간).

・홍영기, 鄭錫珍과『蘭破遺稿』.

・배항섭(HangSeobBae),「1896년 나주 향리층의 의병주도와 그 배경」,(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51권 0호. 2005 pp.183-229)

・배항섭,「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동향」,(『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19, 2005.9, 59-83 (25 pages))

・나선하,「16~17세기 羅州 士族의 존재양상과 鄕權의 추이」,(『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2011.5, 79-114 (36 pages))

・나선하,「19세기 초 羅州 鄕吏層의 契 組織과 邑權의 동향」,(『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30, 2005.9, 189-219 (31 pages))

・박진철(JinCheolPark),「한말 나주읍 향리사회의 지속성과 변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51권 0호. 2005 pp.231-273))

・李熙根,「1894년 동학지도부의 제2차 起兵 추진과 그 성격」,『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6, 2000.3, 1-24 (24 pages)

・裵亢燮,「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11, 2002.2, 31-71 (41 pages)

・박진철(JinCheolPark),「조선시대 향직운영체계(鄕職運營體系)의 변화와 나주(羅州)의 호장층(戶長層) -18,19세기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31권 0호. 2004 pp.81-101